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7월 17일(일) 총 4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 당 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김래영 ☎440-673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동향로’ 를 보는 큐레이터의 다섯 가지 시선

- 인천시립박물관, 2022년도 기획특별전 <큐레이터의 선택> 개최 -

하나의 유물을 큐레이터의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회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시립박물관은 2022년 기획특별전 <큐레이터의 선택> 전시회를 이달 19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큐레이터가 선택한 유물이 어떠한 의미와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전시에 반영되는지 다섯 가지의 테마 전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큐레이터의 선택>전에서 큐레이터가 선택한 유물은 ‘청동향로’로 청동향로를 중심으로 재질, 영감, 형태, 기능, 이력 등 고유의 내러티브를 활용해 다섯 가지의 전시를 구성했다.

먼저 ▲ ‘청동에 일상을 녹이다’전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생활사 전시다.

또 ▲ ‘동상이몽’전은 청동향로에서 영감을 얻은 세 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각자의 해석 방법을 공유하고, ▲ ‘향기로운 세상’전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향의 의미와 사용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향도구와 이십 여 가지의 향 체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로(爐), 예술로’전은 향로 기형의 다양한 변천사를 공예, 회화 등의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고, ▲ ‘전쟁 속의 인천’전에서는 1930년대 후반 전쟁 수행을 위해 군수도시로 변모해가는 인천의 모습을 그려냈다.

결국 모든 전시는 전시를 기획하고 유물을 해석하는 큐레이터의 ‘선택’과 전시를 감상하고 해석하는 관람객의 ‘선택’이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박물관에서 다양한 전시를 골라보는 재미를 맛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개최되며,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8월 15일, 9월 12일, 10월 3일, 10월 10일에는 정상 개관)

기타 전시 관련 사항은 시립박물관(☎032-440-6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관련 포스터 및 유물 사진

<불임> 특별전 포스터

2022년 기획특별전

큐레이터의 선택



JULY 19^{TUE} -
OCTOBER 16^{SUN}, 202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불임〉 유물 사진

